

주민 자발적 참여 '공동체 활력'

무주군 무풍면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 일환 14개 주민 동아리 운영

무주군 무풍면에서 추진 중인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무풍면은 무풍면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14개 주민 동아리가 지역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파크골프, 색소폰, 난타,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50여 명의 회원은 지역 축제와 행사에서 공연 및 봉사 활동으로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길러진 역량은 배후마을 반찬 배달, 스마트폰 교실 등 돌봄 서



무주군 무풍면에서 추진 중인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진은 파크골프 활동 모습.

비스로 이어지며 마을 간 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대석 주민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역 사회를 변

화시키고 있다"며 "나눔과 돌봄의 가치를 실천하는 공동체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무주군, 염소 사육 농가 현장 지도

축산환경 개선 '속도'

무주군이 염소 사육 농가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 지도'에 나서며 축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속보다 사전 안내와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농가와 주민 간 갈등을 줄이려는 시도다.

군은 오는 6월까지 지역 내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지도는 축산협

회가·등록 절차 안내를 비롯해 사육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처리 방법, 악취 저감 관리 요령 등 실질적인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농가별 여건에 맞는 개선 방안을 제시해 현장 체감도를 높여겠다는 방침이다.

무주군은 그동안 일부 농가에서 관련 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해 온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사전 안

내외 계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현장 중심의 밀착 지도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지자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전국적으로 축산 악취와 환경 문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전 관리와 현장 중심 지도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꼽힌다. 특히 단속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축산 행정의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 고유가 피해지원금 현장 점검



진안군이 고유가로 인한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27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이 진안읍을 찾아 현장 점검과 함께 신속한 지급을 독려했다.

진안군이 고유가로 인한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27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이 진안읍을 찾아 현장 점검과 함께 신속한 지급을 독려했다.

이경영 권한대행은 이날 진안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유가 상승으로 주민들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금이 체감도 높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안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신청 및 지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인력 보강과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안내를 강화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오는 9월 진안군 공설운동장 및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민(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8일 군청 강당에서 실무추진단 회의를 열고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했다.

전북도민체전 성공 개최 총력

진안군, 실무추진단 회의 가져... 부서·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진안군은 오는 9월 진안군 공설운동장 및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민(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8일 군청 강당에서 실무추진단 회의를 열고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했다.

이경영 군수 권한대행(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소장 및 전 부서 주무팀장을 비롯해 진안경찰서, 진안소방서, 진안교육지원청, 진안군 체육회, 진안군 장애인체육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회 개요 공유 △추진상황 전반 점검 △부서별 담당업무 등 대회 성공을 위한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두 번째 실무추진단 회의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단순한 계획 공유를 넘어 세부 실행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계기가 됐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개·폐회식

등 행사 운영, 경기장 시설 정비, 교통 통제 및 환경정비 핵심 사업이 다뤄졌으며, 각 사업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또한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연계방안 등 체육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해 보안사항을 신속히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경영 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는 "진안군에서는 처음 개최하는 도민(장애인)체육대회를 준비과정부터 이례적인 계획을 넘어 실행력과 완성도를 높여야 할 때"라며 "각 부서의 유관기관은 책임 있는 자세로 맡은 업무를 추진하고, 원활한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어린이날 큰잔치' 개최

진안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제24회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진안공설운동장(우천 시 반다비체육관)에서 '어린이날 큰잔치'를 개최한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즐길 수 있는 체험 중심 축제로 마련되며 지역 아동과 학부모 등 1,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장에는 키킹 만들기, 다육이 화분 만들기, 석고방향제 체험, 보드게임 제작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떡거리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어린이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플라마켓 '나도 사장'도 열려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전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진안소방서의 소방차 방문 시연과 버블·마술 공연, 에버운스 체험, 어린이 장기자랑, 기념품 배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문화예술 프로그램 '풍성'

장수군은 창작연희극과 미술공연 등을 잇따라 선보이며 군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난 24일 극단민들레(대표 장계숙)의 창작연희극 '뽕벼락'이 관람객의 박수갈채를 막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같은 사업 일환으로 오는 30일 10시, 국내 타악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공연전문예술단체인 방타타악기(대표 방승주)의 학교생활을 모티브로 하는 타악공연 'SCHOOL:타악기가 학교를 점령하다',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 극단청청(대표 박중우)의 세대 공감 청소년 락 뮤지컬 '빨간기타'도 공연될 예정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주최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이 지난 15일 '월맨쇼' 미술공연을 시작으로 6월 12일 10시 30분 '제미있고 신나는 버블', 7월 8일 10시 30분 '동화로 보는 샌드아트'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집중

장수군이 2027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목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7일 장수군은 이정우 군수 권한대행, 기획조정실 실무팀 등과 함께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부처의 예산 편성이 구체화되는 시기에 맞춰 장수군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들을 정부안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도26호선(진안~장수 천천) 2차로 개량사업(7.27km, 667

억 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건의했으며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부처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국도13호선(장수~천천) 2차로 개량(4.4km, 313억 원) △국도26호선(천천~장계) 2차로 개량(3.8km, 312억 원) △국도19호선(장계~계북) 2차로 개량(5.0km, 437억 원) 등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집중 건의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선정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